

# 현대제철 인천공장 디딤쇠 봉사단

##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눈길'



현대제철 인천공장 디딤쇠 봉사단은 회사 창립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수리 사업, 환경정화 활동, 제과제빵 봉사, 쌀 나누기, 연탄 나누기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디딤쇠 봉사단은 매년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인천 동구 지역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선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집수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지역 주민과 교감도 나누고 도배, 장판 교체, 가구 재배치, 페인트 칠 등 집수리에 필요한 작업을 한다. 올해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에도 봉사단원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가정집 내·외벽을 페인트로 새로 단장했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계속 할 예정이다.

디딤쇠 봉사단은 대부분의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을 위해 할애하고 있다.

명절 때가 되면 선물세트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목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한다. 연말에는 쌀 나누기, 연탄 나누기 등을 통해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디딤쇠 봉사단은 제과제빵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한다.

올해 봉사단원들은 머핀 900개를 만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필요한 곳에 전달했다.

이 외에도, 동구 어린이 미술대회 지원, 희망T캠페인, 희망싸개 캠페인, 헌혈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디딤쇠 봉사단은 동구한마음증합복지관에서 매주 목요일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반찬을 도시락통에 담고, 장애인 가정에 직접 개인 차량으로 운반하여 전달한다.

전달 후에는 복지관으로 돌아와 수거한 통을 세척하고 청소한 후 봉사활동을 마무리한다.

이 밖에 보라매보육원에 분기마다 일정 금액과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는다.

디딤쇠 봉사단은 앞으로 현대제철의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화·청소, 미화, 친환경 물품 제작 및 지원 등 테마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체계적인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연합해 진행한 가좌천 정화 활동을 이어가면서 동구의 미관 개선을 위한 벽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비누, 치약, 에코백 등을 직접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 해외 기후 난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에도 한층 더 힘을 쏟을 예정이다.

디딤쇠 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이웃들과 정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겠다"고 말했다. ●